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2. 2024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 3.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 4. 8/27-30 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 5. 고(故) 손금미 집사님 장례 예배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함께 섬겨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가족분들께서 깊은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 6. 김윤규 목사는 휴식의 시간을 보냅니다. (8/27-30)
- 7. 고린도후서 4 장 16 절 (2024 년 8 월 성경 암송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8.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톡 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묵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39 장 (통 39)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29. 시편 65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434 장 / 찬 436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215 장 (통 354)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Philippians) 3:2-3 (p. 320)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누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Who are the people of the true circumcision?

*찬 송 Hymn	421 장 (통 210)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말씀 노트 || 누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빌 3: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미 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hesed*, kindness)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벧전 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신 10: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렘 4: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빌 3: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 10:3)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갈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 목회와 삶 ||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빛의 열매를 맺는 선함

사도 바울은 어둠 속에서 죄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열매가 ‘선함’(goodness)입니다.

‘선함’이라는 헬라어 명사의 뿌리가 되어지는 히브리어 형용사를 생각해 보면 ‘토브’(*tob*)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이 되어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선’(good)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좋은’(*tob*)이라는 히브리어 형용사가 명사화 되어진 단어가 ‘선함’(*toba*)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선’(good)이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강조되어집니다(대상 16:34; 대하 5:13; 시 118:1).

(시 118: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시 78:10; 호 8:1; 말 2:8).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들이 빛이 없는 공간에서 살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 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에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열매로서 선함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빛의 열매로서 선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빛의 열매로서 ‘선함’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받는 성도들이 빛의 열매로서 ‘선함’을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롬 15:14; 살후 1:11).

이러한 모습과 관련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이란 ‘정의’(justice)를 행하며, ‘친절함’(kindness)을 사랑하며, ‘겸손하게’(humbly)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로서 선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미 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hesed*, kindness)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